

콩(대두) 10월 전망

USDA는 2012년 미국 대두 단수를 37.8부셸/에이커로 전망하였다. 수확면적 및 단수의 증가로 2012년 미국 대두 생산량은 2,260만 부셸 상향 조정된 28억 6,000만 부셸로 전망된다. USDA는 2012/13년 미국 대두 수출량을 2,100만 부셸 증가한 12억 6,500만 부셸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12/13년 가공용 대두의 소비도 전월 전망치보다 4,000만 부셸 증가한 15억 4,000만 부셸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2/13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43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부분 미국의 대두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3,740만 톤, 1,200만 톤을 수출함에 따라 2012/13년 미국 대두 수출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 미국 국내시장 전망

공급 증가와 예상보다 빠른 수확률로 대두 가격 하락요인 존재

2012년 미국 대두 단수는 거의 모든 주에서 향상되었다. 비록 중서부 지역의 꼬투리 수가 평년 이하이지만, 생장기가 연장됨에 따라 작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USDA는 2012년 미국 대두 단수를 37.8부셸/에이커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전월전망치인 35.3부셸보다는 높지만 작년 단수 41.9부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미국 대두 재배 및 수확 면적은 각각 7,720만 에이커, 7,570만 에이커로 상향 조정되었다. 수확면적 주요 변경 지역은 일리노이(45만 에이커), 캔사스(40만 에이커), 사우스다코타(20만 에이커), 노스 다코타(15만 에이커), 인디애나(15만 에이커)이다. 수확면적 및 단수 증가로 2012년 미국 대두 생산량은 2,260만 부셸 상향 조정된 28억 6,000만 부셸로 전망된다.

지난 달, USDA 곡물재고량 보고서(Grain Stocks report)에서는 미국 대두 9월 재고량이 총 1억 6,940만 부셸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2011년 대두 수확량을 3,800만 부셸 증가한 30억 9,400만 부셸로 상향조정하였다. 2012/13년 대두 기초 재고량은 작년 이월 물량인 2억 1,500만 부셸보다 감소하였지만 전월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초 재고량 및 수확량 증가로 2012/13년 대두 공급량은 전월전망치보다 2억 6,500만 부셸 상향 조정되었다.

작물의 조숙과 9월의 건조한 기후로 미국 대두 수확속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10월 7일 기준 수확률은 58%로 5년 평균치인 4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서부(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사우스 다코다, 아이오와) 지역의 위쪽으로는 수확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9월, 단수 전망이 호전되고 미국의 신곡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대두 가격이 감소하였다. 8월 하순과 10월 상순 사이, 중앙 일리노이 현금 가격은 부셸당 15.25달러로 2달러 이상 급락하였다. USDA는 미국 평년 농장 가격을 전월전망치인 15~17달러에서 부셸당 14.25~16.25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단경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수확이 완료되고 수요가 가속화되면 대두 가격은 곧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산 대두 수출수요 가속화

빠른 수확 속도가 금년 가을 대두 수요를 촉진시킴에 따라 지난 9월 수출 선적 물량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몇 달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두 수입국들은 남미의 대두 재고량이 고갈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 10월 4일 기준으로 미국 수출 판매 계약은 이미 8억 8,100만 부셸이며, 이는 동기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달의 추가적인 대두 공급으로 미국 대두 수출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USDA는 2012/13년 수출량을 2,100만 부셸 증가한 12억 6,500만 부셸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초반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선적 물량이 내년 상반기로 편중되어 새로운 수출 판매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하반기 미국 대두 공급량이 지속적인 대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 대두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증가로 2012/13년 미국 대두박 수출도 전월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박 수출은 2011/12년 960만 톤보다 대폭 감소하였지만 70만 쏫톤 증가한 75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두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출 판매 계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증가로 2012/13년 대두유 수요 보충해야

대두유 및 대두박의 공급은 단기간동안 충분하겠지만 2012/13년 말 이전에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국 가공업자들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 과열된 경쟁이 일어난다면 국내 가공을 위한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USDA는 대두 가공품 수요가 2011/12년 17억 300만 부셸에서 2012/13년 15억 4,000만 부셸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난 달보다 대두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품 수요는 전월 전망치보다 4,000만 부셸 상향 조정되었다.

USDA는 2012/13년 국내 대두유 소비를 5억 파운드 증가한 181억 파운드로 전망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바이오디젤 시장의 소비로 2012/13년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환경보호기구(EPA)는 신재생 연료 기준에 따라 2013년 바이오매스 생산과정에서 바이오디젤 사용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내년 바이오디젤 혼합에는 12억 8,000만 갤런이 필요하며, EPA의 자체 정책은 내년 바이오디젤 원료를 20억 파운드까지 소비하는 것이다. 대두유는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되는 총 공급 원료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대두유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유지 사용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식용유지 소비가 변화하면서 다른 식물성 유지(카놀라유와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팜유는 대두유에 비해 현재 비정상적으로 저렴하지만, EPA는 아직 팜유를 예비 원료로 승인되지 않아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바이오디젤 원료로 승인된 카놀라유의 수입 증가는 내년 캐나다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제약을 받을 것이다.

USDA는 2012/13년 동안 낮은 대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달 대두유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12억 7,000만 파운드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초과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며, 내년 봄 미국과 남미의 대두유 가격 차이는 미국 수입의 선적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2012/13년 대두유 수입량을 거의 두배에 가까운 3억 5,000만 파운드로 전망하였다.

두 국가 사이의 대두유 교역은 2003/04년 하반기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때 공급 부족으로 톤 당 150~170달러의 미국 대두유에 가격 프리미엄이 추가되었다. 미국 대두유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두유 수입에 19.1%의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 억제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 수입업자들이 1년 이내(또는 최대 3년까지 연장)에 정제유 같은 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가 환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13년 대두유 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53~57센트로 예상된다.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USDA는 전월전망치인 54~58센트보다 하향 조정하지만 작년 가격인 51.9센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팜유 시장의 과잉 현상은 대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대두유 가격이 비교적 높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제한될 것이다. 미국 대두유 수출은 2011/12년 14억 5,000만 파운드에서 2012/13년 12억 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부 평야 재배지역 증가로 카놀라 및 해바라기씨 수확량 증가, 하지만 단수는 감소

북부 평야의 봄 재배 조건이 전년보다 개선됨에 따라 파종면적과 생산량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놀라의 경우 개화기에 고온 건조한 기후로 수확량이 줄었고, 몇 차례의 병충해로 단수가 감소하였다. 카놀라 수확은 일찍 시작하였으며, 노스 다코다는 9월 중순 수확이 완료되었다. USDA는 2012년 카놀라 전국 평균 단수를 에이커당 1,430 파운드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작년 단수인 1,475 파운드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수확면적이 69만 5,000 에이커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카놀라 총 생산량은 25억 파운드로 작년 15억 파운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카놀라 수확량이 해바라기씨 수확량보다 많은 첫 해가 될 것이다.

카놀라 공급량 증가와 높은 국내 가공품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2012년 가공품 소비량은 작년 26억 6,000만 파운드에서 33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다. 카놀라유 및 카놀라박의 공급량 증가는 국내 생산과 수입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예상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미국의 카놀라유 및 카놀라박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해바라기씨 수확은 올 가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SDA는 올해 미국 해바라기씨 평균 단수를 에이커당 1,354 파운드로 예상하며, 이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주요 생산 주인 노스 다코다의 해바라기씨 단수가 반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단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올 여름 이상 고온과 심각한 가뭄으로 사우스 다코다, 캔자스, 네브라스카, 그리고 콜로라도의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수확면적(180만 에이커까지)이 24% 증가됨에 따라 해바라기씨 생산량은 작년 20억 파운드에서 25억 파운드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 증가분은 모두 오일 타입의 해바라기씨로 가공될 것이다. 2012/13년 해바라기씨 총 공급량의 증가는 1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기말 재고량(1억 3,980만 파운드)을 완화시킬 것이다.

오일 타입 해바라기씨의 높은 공급량은 국내 가공품 수요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가공품 수요는 작년 7년 만에 최저치인 7억 7,000만 파운드까지 떨어진

이후 12억 5,000만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바라기씨 수요 증가로 낮은 수준의 기말재고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시장 전망

미국 공급량 증가로 수입 안정

미국 대두 공급량의 증가 전망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남미의 작물 전환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 수확량 증가로 2012/13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월전망치 2억 5,810만 톤에서 2억 6,43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대두 및 대두박 수출 점유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전월전망치인 3,910만 톤에서 3,74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도 전월전망치인 1,350만 톤에 비해 1,200만 톤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미국 대두 수출에 대해 제약이 적어 중국의 대량 수입을 부추길 것이다. USDA는 2012/13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을 전월전망치인 5,95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의 대두 재고량이 전월전망치보다 100만 톤 늘어난 1,280만 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각한 재고량 축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호주의 카놀라 생산량 감소 전망

캐나다와 호주의 유채씨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USDA는 2012/13년 세계 유채씨 생산량을 전월전망치 6,130만 톤에서 5,9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1/12년 6,060만 톤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캐나다와 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2/13년 세계 유채씨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에서 캐나다와 호주 두 국가 모두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세계 유채씨 수출은 전월전망치보다 140만 톤 감소한 1,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록적인 재배면적과 생장기 초반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카놀라 생산량은 겨우 1,3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월전망치보다 200만 톤 감소하였으며, 작년 수확량인 1,450만 톤보다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전국 평균 카놀라 단수는 전년대비 1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스캐처원과 앨버타의 감소가 가장 심하였다. 개화기인 7월 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몇 차례 심각한 병충해로 단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기초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12/13년 공급량은 2,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비록 세계 수요가 강세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캐나다 카놀라 수출은 전년 870만 톤에서 730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카놀라 공급량 감소와 높은 가격으로 2012/13년 국내 가공품 수요는 전년 700만 톤에서 675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카놀라유 및 카놀라박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USDA는 2012/13년 호주 카놀라 생산량을 전월전망 300만 톤보다 하향 조정된 276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호주 카놀라 재배면적이 220만 헥타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작년 생산량인 282만 톤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단수는 작년에 기록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남동부 지역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주 서부는 6~8월 동안 건조한 기후로 단

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카놀라씨 수출은 전월전망치인 245만 톤에서 210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국들의 공급량 감소는 유채씨 주요 수입국들의 교역을 제한할 것이다. 2012/13년 중국의 유채씨 수입은 50만 톤 감소한 180만 톤으로 전망되며, EU, 일본, 멕시코, 파키스탄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